



## 한국소문사,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확장 이전식 성황리 개최 최신 고모리 인쇄기 · UV CTP 도입

한국소문사(대표 박성구)는 지난 7월 13일 파주공장에서 확장이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두근 상호존중과배려운동본부 총재, 고수곤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남원호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영일 시대고시기획 대표이사, 이광표 서울문화미디어그룹 대표이사 등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가해 행사를 축하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한국소문사(대표 박성구)는 인쇄사업부, 제책사업부, 편집·디자인사업부, 기업홍보사업부 등 4개부서로 조직돼 있으며, 기획, 편집·디자인, 출력, 인쇄, 제책 등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토탈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는 인쇄사다.

인쇄 및 제책사업부에서는 최신 인쇄시설과 숙련된 기술을 통해 고난이도의 색상재현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모든 종류의 인쇄용지를 안정적인 재고운영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이에 인쇄에서 제책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편집·디자인사업부는 브로슈어, 카탈로그, 포스터, POP, 패키지, 캘린더 디자인, 신문·잡지광고 디자인, 캐릭터, 일러스트 등 모든 출판 및 상업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홍보사업부는 CI, BI, 기업홍보 영상, 텔레비전·라디오

광고제작, 매체광고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모바일 솔루션 등 다양한 영역의 기업홍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8년 품질경영시스템 인증(ISO 9001:2000),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 선정되는 등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출판사인 서울문화미디어그룹, 시대고시기획, 웅진, 에듀박스 등의 책자인쇄를 담당하고 있다.

보유기종으로는 바시스프린트 UV 세터 등 CTP 출력기 2대, 하이텔 오프셋인쇄기 1대, 4·6전지 오프셋인쇄기 2대, 고모리 4색인쇄기 1대, 고모리 양면인쇄기 1대, 아키야마 4색인쇄기 1대, 소부기 2대 등 10여대의 인쇄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고모리 4색인쇄기는 지난 5월에, 바시스 UV 세터 1대는 지난 7월에 도입된 신기종이다.

## 21년만의 첫 행사... 업계 관계자 너도나도 덕담

한국소문사는 지난 1991년 4월 설립된 이래 올해 21주년을 맞이했으며, 서울 원효로에 위치했던 공장을 지난 6월 파주시로 확장·이전했다. 대지면적 1649㎡, 연면적 1030.12㎡ 규모의 파주공장은 1층에는 인쇄사가, 2층에는 CTP실과 사무실이 위치해 있다. 종이보관실은 별도로 신축했는데, 이 공간에서 확장이전기념식을 개최했다.

서병기 정민프린테크 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은 정두근 상호존중과배려운동본부 총재, 고수곤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남원호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영일 시대고시기획 대표이사, 이광표 서울문화미디어그룹 대표이사 등 고객사 및 인쇄관련 내외빈 200여명의 인쇄인이 참가했다.

박성구 대표는 기념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전식 행사에 축하해주러 오셔서 감사하다. 지난 밤 장대비가 쏟아져 잠을 설쳤는데, 오늘 이렇게 맑게 개인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사업이 잘되라고 도와주는 것 같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여년 동안 인쇄라는 한 우물만 고집스럽게 고수해 왔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감격스럽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오늘부터 새로운 도약의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임직원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두근 총재는 축사에서 “38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병영문화를 고치고자 시작했던 상호존중과 배려 운동을 사회운동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하고 있다. 상호존중과 배려운동은 ‘갈등이 심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화합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운동이다. 인쇄와 출판이 우리 사회가 밝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한다. 한국소문사의 발전과 박성구 사장의 승승장구, 가정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고수곤 회장은 축사에서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시설을 확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다들 좌절하고 있는 이때 한국소문사의 확장·이전식은 전국의 인쇄인에게 희망을 주었다. 한국소문사 제2의 도약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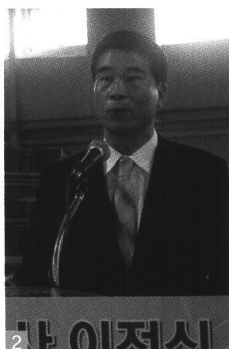
이광표 서울문화미디어그룹 대표이사는 격려사에서 “같은 출판업계에 있으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은 대화를 하곤 했다. 지금은 우리도 어렵고 박 사장도 어려운 시기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함께 헤쳐 나가자”고 말했다.

공식행사 종료 후 기념만찬에서 남원호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꿉친구가 이렇게 사업을 확장 이전한다고 해서 만사를 제치고 달려왔다. 하는 일 모두 잘되고,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며 축배를 제안했다. ☺

**본사**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57-11

**파주공장** | 파주시 거문이길 22-9

**전화** | 031-944-9194 **팩스** | 031-944-9194



1. 행사 내빈들의 기념촬영 모습
2. 기념사를 하고있는 한국소문사 박성구 대표
3. 축사를 하는 정두근 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 총재
4. 축사를 하는 고수곤 인쇄연합회 회장
5. 건배사를 하는 남원호 서울인쇄조합 이사장